수원 야간학과 산업체 특별전형 마찰

교육부방침, 학생측 교육의 질저하 교통여건들어 난색표명

본교 수원캠퍼스에서는 93년도 입학전형 요강 중 '야간학과 산업체 근로자 특별전형'의 실행안인 정원의 40% 모집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학과인 러시아어과(이하·러어과)와 국제관계학과는 지난 10월5일 '러어과와 국제관계학과 발전전망과 산업체 특별전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15,20일 학교당국과 실무면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 학과는 수학능력 격차로 인한 학문의 질저하와 졸업후 사회진출시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이유로 특별전형 반대를 주장했으나 학교당국은 이 전형이 교육부가 하달한 의무조항임을 들어 난색을 표하였다.

또한 양 학과는 야간수업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 준비상황을 학교 당국에 질의했으나 산업체 특별전형에 대한 양측의 원칙 고수로 인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해설】학교당국은 러어과와 국제관계학과 신설을 교육부에 일반(주간)으로 요청했으나 야간학과로 인준받아 지난해에 신설, 신입생을 모집했다.

학기 초 학교측의 행정미비로 인해 양과는 과사무실과 회화실도 마련되지 않고 스쿨버스와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야간학부에의 배려 부족으로 강의의 일부를 주간에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야간학과 주간수업 전면금지와 이번 산업체 근로자 특별전형의 의무사항 시달로 야간학과 학생들은 야간수업 정상화에 대한 진통을 겪고 있다.

러어과 학생회장 최정희군은 이에 대해 '야간수업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선결되어야 할 것은 제반 복지교통시설 이용 보장 등을 촉구하였으며 국제관계학과 학생회장 김경호군은 '각 캠퍼스의 제반 교육여건과 생활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교육부의 일률적인 행정지침은 무리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야간수업 실시안을 마련했으나 산업체 특별전형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밝혀 교육부와 학교당국과 학생측 3자간의 견해가 엇갈려 원활한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추위, 한마음 행사 결산보고

대중성 확보등 긍정적 평가

경희한마음 추진 위원회(이하 경추위)는 지난 2일 개최되었던 '경희한마음' 행사 이익금을 지난 22일 결산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기관 및 단체 7백99만4천4백30원, 단대교수 및 병설학교 2백54만원, 개인 1백95만원 등 총 1천2백44만4백30원의 후원금이 경추위로 기탁되었다.

체육진흥기금 1억원 확충과 경희학원 발전을 위해 실시된 '경희한마음' 행사는 대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상면에서 행사의 본래 의미를 희석화했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창우(체육·4) 위원장은 '행사 방법상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고 있다'며 행사를 평가했다.

동연·족구대회 개최

수원 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학생회관 광장에서 '민자당 재집권 저지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운동본부 건설하기 족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아리와 각 분과의 특성에 맞는 대선운동본부를 건설하고 동아리, 분과, 동연간의 결속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족구팀은 한 동아리당 여학생 1명을 포함한 5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동아리별 예선을 거쳐 오는 30일 결승전이 치뤄진다.

직원 체육대회 무기한 연기

행정 착오로 환경·관리직 배제돼

서울캠퍼스 사무처는 지난 24일 수원캠퍼스 체육대회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한 직원체육대회를 노동조합과의 마찰로 인해 무기한 연기하였다.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9월23일 임금협약 체결 이후 노·사화합취지의 행사 개최로 학교당국에 제안하여 학교 당국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 직원체육대회의 참가 대상자 중 관리·환경직이 배제되자 노조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상무집행위원회를 노조사무실에서 열어 직원체육대회의 체육대회 불참, 성명서 배포, 총장 면담등을 결의하였다.

이에 권영환 노조 위원장은 "경희 가족 정신에도 위배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반쪽 행사일뿐"이라며 직원체육대회의 무당성을 밝혔다.

한편 한동명 서울캠퍼스 사무처장은 "원래 체육대회를 상정할 때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노사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했으나, 행정상의 착오로 오류를 범했다"며 "직원체육대회의 오류를 시인하고, 노사가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당분간 이번 체육대회는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대, 영어경시대회 개최

학습의욕 고취 위해 마련

정경대 교무과는 제3회 영어경시대회를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정경대 111강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경시대회는 정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91학년도부터 연2회에 걸쳐 상품수여제로 실시해오던 영어경시대회는 올해에 제도를 개선해 연1회로 줄이고 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1백점만점에 1백문제가 출제되며 상금은 1등 1명에 40만원, 2등 1명에 30만원, 3등 4명에 각 20만원이 수여된다.

검은손의 신출귀몰

◇… 직통전화 0303

"여보세요? 호된 질책도 결히 결하게 들렸다는 청운의 뜻을 좀고 공허하나마 참구를 마련하셨으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정치를 하신다는데 왜 야당이 말실야합으로 하루아침에 여당이 되었는지, 도덕정치를 하겠다는데 왜 건영의 특혜사건이 세간을 시끄럽게 하는지, 사회에는 왜 아직도 양심수가 있는지, 언론과 집회는 왜 저지당하고 원혼불쇄되는지, 생활정치를 하신다는데 왜 일본 누드집이 범람하는지, 우리 교단에서는 올바른 교사가 왜 쫓겨나는지에 대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답답하고 이해안되는 이정책들에 대해 답변좀 해보십시오. 네?"

◇… 기나긴 장정, 민주언론 횃불되길

50일의 파업투쟁을 이끌어온 문화방송조합원 여러분!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동지들의 구속과 모진 탄압에도 끈질기게 지켜온 자유언론수호 정신과 민주화 열망이 그 실현의 횃불들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보도·공정방송 실현이 구호론이 아니었음을 이번 대선에서, 그리고 사회전반의 사건들에서 실천으로 곧 보여지리라 확신해 봅니다.

취재노트

◇… 잃어버린 양심은 어디에

서천골 화생식당에 일명 '검은손의 마술사'가 나타나 신출귀몰 하는 묘기를 펼친다고.

바로 배식대가 바쁜 틈을 타 식권을 내지않고 배식받는 일부 몰지각한 비양심의 소유자인 藝형들이 그 주역이라고.

식대 내지않고 채운 포만감에 양심이 텀어져 나간 허전함을 모르는가 보구려.

◇… 하루살이, 난민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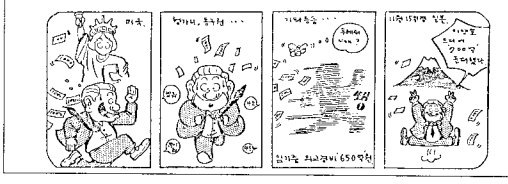
한국판 이디오피아 난민들이 입동을 앞두고 하루하루 조바심치고 있다고. 다름아닌 각종 사업의 미명하에 강제철거 된 꽃마을을 비닐움막 속 철거민들이 또한차례 철거바람에 떨고 있다는 것. 겨울철을 앞두고도 강행하는 행정당국의 무분별한 시책도 너무하거니와 호화주택과 비참한 철거촌의 현실대비가 노트구 한스럽기만 하오이다.

◇… '행여나'는 이제 그만

대선을 앞두고 고활골 곳곳에서 '행여나 심사'가 솟아오른다는데.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군복무 단축공약에 입대 앞둔 藝형들의 마음은 설레임 수 밖에 없다고. 선거공약의 公約으로 끝나버린 약속환에도 행여나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 藝형들의 고순진함(?)에 노트구 경탄할 뿐이옷다.

도깨비지 제 152 회

장 세 찬



뚜렷한 목표로 자아실현 도모

—오수철(회계·84)선배를 만나

그사람 지금

"회계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려는 기업들과는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의 업무가 힘들지만 그런만큼 보람도 크지요"

공인회계사로서 자기 길을 걷고 있는 오수철(회계·84) 동문.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자부심을 그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다.

자원해서 입대했던 해병대시절에도 그는 틈틈히 공부해서 제대한 지 20개월 만인 89년 대학 2학년때 공인회계사시험(CPA)을 합격했다. 어떻게 그리 쉽게 합격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공부를 몰아쳐서 하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공부를 하더라도 하루를 거르지 않고 책을 보았지요"라고 오동문은 대답한다.

공부하다가 머리가 무거워지면 음악도 듣고 만화도 즐겨보았다고. 특히 키타를 치면서 노래부르노라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진다며 웃는다.

재학시절에는 후배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었다는 그는 "후배들에게 부담되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그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한 유형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길 바랬죠"라고 이야기 한다.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커

전문직적인 숫자에 둘러싸인 그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는 틈틈히 명상보강이나 명자 등의 고전을 읽을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분목은 붉기쥬주세요 분토지장은 불가오세니라"라는 명심보감의 어구가 가장 소중하다고. 책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책은 흙으로 친 담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삶을 잘 조각하려는 노력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조국을 위해서 운동한다는 친구들이 자신의 생활을 알차게 채워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고 털어놓는 그는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부칙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말한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뚜렷한 목표아래 자신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겠죠.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고 오수철동문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덧었다.

공인회계사 시험(CPA)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사회 곳곳에서 회계사로 살아가는 동문들과 전폭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희회계사모임에서 오동문은 총무일을 거들고 있기도 하다. 이 모임은 현재 80여명의 동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더욱 커나갈 것이라고 한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고 싶고 몸 흐르는 듯한 삶의 태도를 갖고 싶다는 오동문은 현재 세화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편히게 해주는 사람과 곤간에 결혼할 예정이다.

상업주의의 사생아 오렌지족

朔風

「목에는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손금1남짓의 목걸이가 징표처럼 걸려있고, 귀고리는 볼른 밖에까지 까는 현란한 장식과 이색적인 헤어스타일, 말끝한 용모에 실은 화장 등 토탈패션. 옷은 일본제 블라우스나 무스탕 코트에 런던제 미니스커트나 미제 게스 청바지를 입고, 입에는 일본제 마일드 세븐이 물려있고, 손에는 모토롤라 핸디폰이 들려있다」

일전에 모 일간지에 실려 커다란 화제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속칭 「오렌지족」의 모습이다. 오렌지처럼 연하고 나긋나긋하며 달콤한 것만을 찾는다해서 오렌지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먼땅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땅 강남을 대표하는 압구정파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세련된 용모와 첨단의 패션을 뽐내고 핸디폰과 차가 필수품인 이들은 계급구분도 남다르다. 그런저나 소나타를 타면 오렌지, 스쿠프는 껑깡. 자가용이 없거나 프라이드 수준이면 껑죽이라고.

이런 현란한 겉치레와 상표가 그들 외양의 특징이라면, 삶은 단지 즐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 가치의 올타리이다.

어찌보면 단순한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는 일부 젊은 층의 무분별한 과소비 행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늘어놓는 것은 그속에서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때로는 을씨년스런 그림자 賤民資本主義의 짐후군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삶의 양식이다.

특히 靑年文化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발아하고 꽃을 피워왔다. 70년대 참바지와 통기타 샐팍주로 상징되던 문화는 낭만과 함께 당시 사회상황에 대한 무력감을 표출했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전대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진보적 이념과 실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중적 정서가 어우러져 지난 10년동안 주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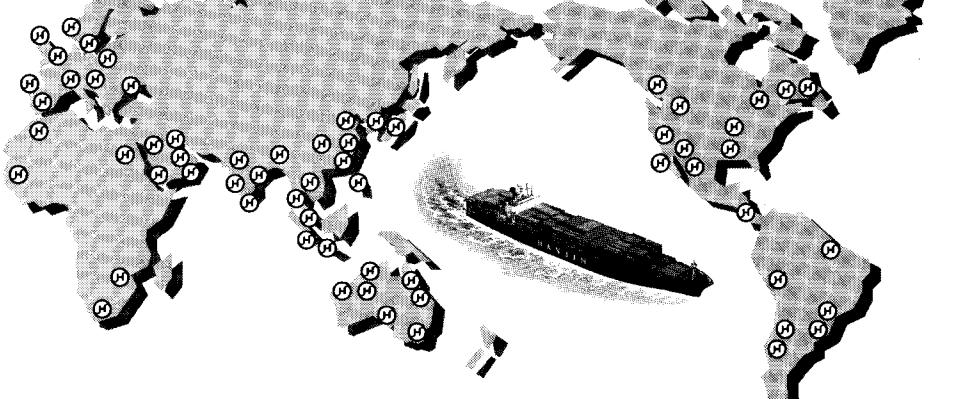
이제 청년문화의 전개에 있어 또 하나의 전환기인 90년대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업굣 앞의 오렌지족을 통해 관이하게 새로운 징후의 싹을 볼수 있다. 단지 짧다는 이유만으로 넉넉히 참여할 수 있었던 70년대와 80년대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그랜져와 프라이드이상의 차이가 있다.

오렌지족문화는 결국 과시적소비와 같치해, 상업주의에 뜸들어가는 끝없는 향락과 관능의 꽃이라 할 수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기도취와 사랑이라 이름할 수 없는 과상적 인간관계의 악순환으로 떨어진다.

일그러진 젊음의 한 초상을 보면서, 그 일탈된 문화행태를 보면서 자랑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시대 삶의 나침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혹 방향없이 부평초처럼 흔들리며 마냥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山石)

한진해운은 세계를 무대로 해운대국 KOREA의 명성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올해에도 해외에서만
8천억원 이상의 영업실적을 올렸습니다.
■선복량 세계 10대 선사
■수송량 세계 5대 선사
■매출액 1조원 달성(해외영업실적 8천억원)
■92년 매출액 순위 국내 40대 기업

"한진해운은 세계적인 종합물류회사로서 2000년대를 향한 젊은 여러분의 의욕적인 패기와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친근한 이름
韓進海運

한진해운 해외지점망
■미주지역본부(로스앤젤레스)/롱비치/샌프란시스코/시애틀/휴스턴/페스틀레인/뉴욕/아틀란타/달라스/클리블랜드/샌트루이스/엠피스/보스턴/포틀랜드/시바나/윌밍톤/뱅쿠버/몬트리얼/토론토/파나마/멕시코시티 ■구주지역본부(함부르크)/함부르크/베를린/프랑크푸르트/뮌헨/런던/맨체스터/밀턴스토워/로테르담/파리/두셀돌프/인트워프/브레멘/아르후스/코펜하겐/고텐부르그/웰싱키/오슬로/더블린/비엔나/빌비오/리스본/로마르르/바셀/수에즈 ■일본지역본부(도오쿄오)/도오쿄오/오사카/코베/요꼬하마/니고야/시미즈 ●대만지점/대북/기룡/고웅/대중 ●중국지점/상해/북경/천진/대련/청도 ●홍콩지점/홍콩/마카오/마닐라 ■서남아지역본부(싱가폴)/방콕/싱가폴/치타공/자카르타/다카/쩜베이/몸톨로/포트캘싱/시드니 ●지중해지점/비르셀로나/마르세이유/제노아 ●중동지점/두바이/담만/쿠웨이트/호메이다/제다/아가비 ●아프리카지점/카사블랑카/다카르/케이프타운 ●중남미지점/과테말라/멕시비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